

# 코로나로 대면 봉사활동 제약 '대략난감'

### 복지시설 등 원생 감염 우려로 봉사자 모집 안해 작년 2만9098명 봉사 참여... 전년 대비 절반 줄어

“봉사활동 실적이 취업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도 포함되는데...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네요” 대학 졸업을 앞둔 송모(26·제주시 애월읍)씨는 봉사활동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대면 봉사활동 자리를 구하지 못해 난감해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종종 모집 공고가 올라오지만 모집 인원 대비 신청 인원이 넘쳐 매

번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복지관 등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대면 봉사자를 모집하지 않으면서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이 봉사활동 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범대학, 교육대학 등 대학생들이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 대거 참여하는 교육봉사의 경우 장애인 시설, 아동센터 등으로 자리가 한정

돼 있어 경쟁률이 더욱 세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 현재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단 3건에 불과하다.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도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2만9098명으로, 전년 대비 3만명 가량 감소했다. 팬데믹 이전인 최근 3년 봉사 참여자수를 보면 지난 2019년 5만4340명, 2018년 7만1901명, 2017년 7만884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봉사활동은 복지시설 운영에 큰 힘이 됐다. 강다혜기자

대학생 정한별(25·여)씨는 “대면 봉사활동을 도저히 구할 수 없어서 마스크 목걸이 제작, 텀모자 만들기 등 비대면 봉사활동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공고를 아예 올리지 않다가 최근 처음으로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일찍이 마감됐다”며 “대면 봉사자를 받지 못해서 센터 관리자들이 힘들긴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등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 “진실규명 공동조사하자” 4·3단체, 바이든 정부에 서한

제주지역 4·3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1일 미국 바이든 정부에게 공개 서한문을 보내 공개사과와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4·3단체들은 이날 서한문을 통해 “3만명 이상이 희생당한 제주4·3 학살은 이승만 정부와 당시 대한민국 군과 경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미군이 경찰 폭력과 분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탄압한 결과”라며 “미국은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다혜기자



해녀와 한라산 21일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에서 물질을 나가는 해녀들 뒤로 만설의 한라산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다혜기자

## 이러다 제주해녀 명맥 끊길라...

### 제주시 지역 현역해녀 2141명... 지난해 100명 감소 고령화로 은퇴·사망자 늘는데 신규해녀 수는 미미

제주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해녀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1년 새 현역해녀가 1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해녀로 진입하는 수가 고령화로 사망하거나 물질을 중단하는 해녀에 비해 크게 못미처면서다. 제주시는 지역의 3개 어촌계 소속 현역해녀가 지난해말 기준 2141명으로 전년(2241명) 대비 4.5% (100명)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2481명)과 비교하면 5년 새 300명 넘게 줄었다.

지난해 해녀 감소 이유는 물질중단 27명, 은퇴 73명, 타시도 진출 3명, 사망 18명으로 총 121명이 감소한 반면 신규해녀 가입은 21명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해녀의 연령대는 30대 10명(0.5%), 40대 32명(1.5%), 50대 228명(10.6%), 60대 690명(32.2%), 70대 848명(39.6%), 80세 이상이 333명(15.6%)이다. 70세 이상 고령 해녀가 55.1%(1181명)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고령화에

따른 은퇴나 물질 중단 등으로 그 수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고령 해녀는 우도면 서광어촌계 소속으로 76년 경력의 김모(91)씨, 최연소 해녀는 이호어촌계 소속 이모(32)씨다. 해남은 4명으로, 애월읍·추자면·용담2동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녀 고령화에 따른 신규해녀 양성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앞으로도 해녀수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2곳의 해녀학교에서 양성교육을 마치고 어촌계에 가입한 만 40세 미만 해녀에게

정착지원금으로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어촌계 가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어촌계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가입비도 200만~300만원 안팎으로 만만찮다. 수산자원 감소로 물질작업을 통한 수입이 예전같지 않아 일손 고되고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점도 젊은층의 해녀 진입을 꺼리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2019년 말 기준 도내 현역해녀는 3820명이다. 1970년대만 해도 1만명이 넘었지만 1980년 7804명, 1990년 6827명으로 줄어들었고 2017년에는 3985명으로 4000명선도 무너졌다. 제주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2017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2일 금요일 음 12월 10일 (2월)

#### 기상정보



#### 흐리고 비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3°C, 낮 최고기온은 13-16°C로 전망된다.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서부서쪽 먼바다에는 안개가 끼는 해역이 많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70%	제주	30%
70%	성산	30%
70%	고산	30%
70%	서귀포	30%

해돋이 07:36	달뜨기 12:48
해짐 17:55	달짐 01:38
물때 만조 06:12	간조 11:50
17:24	:

#### 주간예보

내일	흐리고 비	11/14°C
모레	흐리고 비	9/12°C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관심
감기가능지수 보통

####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7
한림민속오일장	4.9
세화민속오일장	5.10
함덕오일장	1.6
고성오일장	4.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9
성산오일장	1.6
중문향토오일장	3.8
표선오일장	2.7
대정오일장	1.6

## 제주 주말에 겨울비 내릴 듯

### 기상청 “당분간 기온 높아”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22일 아침최저기온은 12-13°C, 낮 최고기온은 13-16°C로 예보됐다. 2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제주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22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기간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22일 오전에 잠시 그쳤던 비는 토요일인 23일 새벽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예상 강수량은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23일에는 전날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아침최저기온은 10-12°C, 낮 최고기온은 14-15°C로 예상돼 포근할 전망이다. 다만 23일 오후부터 제주에 초속 10~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평년보다 5-10°C 높은 기온분포를 보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교육공동체 무너뜨리는 차등 성과급 폐지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공동체 무너뜨리는 차등 성과급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원성과급제가 도입된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면서 “일률

적 기준으로 교육의 효과를 재단하고 교사를 줄 세위 3등급을 매기는 제도 앞에서 교사의 자존감은 떨어졌고, 구성원간에는 경쟁과 갈등이 자리 잡았으면서 교육공동체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전교조가 5만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1위가 성과급과 교육평가였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 🏢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